

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대응책 마련... 지속적·안정적 학습 위한 원격수업 지원 계획·추진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은 전라북도의회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무선인터넷 구축과 노트북·태블릿 보급 등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과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상시적인 교육

체제로 안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원격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전북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구현하는 원격수업'을 비전으로 학교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원격수업 기기 지원 등의 원격수업 여건 조성, 모든 학생

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공정한 원격수업 관리 지원,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의 원격수업 전문성 강화를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전북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정된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비대면 프로그램 강사 공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2021년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역량있는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성평등 전북, 행복한 여성과 가족'이라는 미션 하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취득과정, 생활문화복지지원과정 등 4개 분야 80여 과목을 연4회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운영 중 중도 폐강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 확보와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모집분야는 3D펜 지도사, 타로심리상담사, 칼립바 등 16개 프로그램이다. 지원서, 강의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센터 홈페이지(www.jwcre.kr) 공고에서 다운 받아 우편 및 이메일(todayjwcre@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료자로서, 해당 분야에 풍부한 자, 혹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강의 경력 및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비대면 교육 진행을 담당할 예정인 만큼 온라인 교육 경험자에게 우선점도 부여한다.

한편 위촉교수 공개 모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3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자격요건, 제출 서류 등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www.jwcre.kr)나 교육사업팀 063)254-38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맞손'

전주대 LINC+사업단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9일 LINC+사업단 세미나실에서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상호 정보 교류 ▲교육 방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공동 교재개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NC+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전주기전대와 협력해 LINC+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에



전주대 LINC+사업단은 9일 LINC+사업단 세미나실에서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전주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20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도모했다."

주송 단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전주기전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미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 가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구살리기 실천운동 전개

디지털 탄소 감축·자원절약 실천운동 등... 생태감수성 육성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구살리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웹메일(JBEdu) 기능개선을 통해 디지털 탄소 감축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교직원 웹메일 사용자 수는 총 2만181명이며, 전체 보관 메일 약 709만건, 1인당 평균 보관 메일은 351건에 이른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직원 웹메일 메일화면을 통해 '주 1회 이메일 지우는

날 실시(디지털 탄소 줄이기)' 팝업창을 게시하고 30개월이 지난 장기미사용 메일 삭제,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한(보관기간과 횟수, 차단), 스팸메일 차단 정책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탄소를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지키

는 자원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이없는 회의, 책상의 날, 아이스팩 수거 전달, 폐전지 수거, 일회용 나무젓가락 안쓰기,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지구살리기' 등이다.

이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어플(기후행동 1.5°C)'을 활용한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로 기후행동 1.5°C 앱을 활용한 참여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실적 우수교는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졸업생들을 아낌없이 응원합니다"

전주비전대, 44회 학위수여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9일 대강당에서 총장과 학과교수, 학생 대표 및 수상자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졸업하는 학생은 모두 1,335명(전문학사 1,079명, 학사 256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됐다. 행사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행사 전/후 행사장 방역 및 소독 시행 등 철저을 기했다.

전주비전대 학사지원처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졸업식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또한 학과별 졸업식을 희망하는 학과에 한해 학과장 재량으로 9일 분산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미래(신재생에너지공학과 학사), 박진원(전기과

전문학사) 학생이 대표로 학위증을 받았으며, 이다진(물리치료학과), 이은서(미용건강과) 학생이 각각 이사장상과 총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전주비전대 기계과에 재입학해 포스코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홍순직 총장은 "여러분도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 세계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군으로 우뚝 설 졸업생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 국제 포럼, 온라인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8일 공정무역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 2021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전주대, 대전대, 일본 쿠마모토대학, FTSN 규슈지부, NPO 동아시아공생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로 한국과 일본의 공정무역 전문가 및 교수,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정무역 전문가와 대학생 활동가들이 공정무역 활동의 전반과 그동안 직접 참여하고 경험했던 대학 및 지역에서의 공정무역 활동들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전주대에서 공정무역 동아리를 지도하는 허문경 교수(문화관광종합연구소)의 '한국에서의 공정무역 운동'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시모 노세키시립대학 나가하마 교이치 교수와 쿠마모토대학 신명지 교수, 대전대 구로기 토지 교수가 각 나라와 대학의 공정무역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대학생들의 공정무역 사례도 소개됐다. 쿠마모토대학에서는 FT(Fair Trade) 연구회, 일본의 공정

무역 타운 활동을 소개하고, 대전대에서는 대전지역 공정무역 마을에 대해 발표했다. 전주대에서는 FAIRCAFE(공정무역 동아리) 소속 이한이, 박시은, 이수아 학생이 각각 '전주대 공정무역 활동보고와 계획',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과 아이쿰협동조합'에 대해 발표했다.

전주대 공정무역 동아리의 공정무역 커피 시음회 등을 통해 도출된 공정무역 커피 관능 평가 결과와 참신한 공정무역 캠페인 방법 등도 공유돼 많은 참여자의 이목을 끌었다.

전주대 FAIRCAFE 이한이 학생(한식조리학과)은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부터 아동노동착취와 세계경제 양극화 등 현 무역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공정무역 운동을 통해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9년 국내 최초 공정무역인증 대학으로 선정, 지역혁신센터로 중심으로 '정당한 교역, 착학 소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정무역 동아리를 운영하며 공정무역 커피 시음회, 공정무역 도서 읽기 및 저자 초청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